

# 임실N치즈, 독창·흥행 모두 OK

### 34만여명 관광객 몰려... 치즈페어·아모르파티·500인분 왕피자 등 인기

태풍과 동시다발적으로 지역축제들이 열린 가운데서도 '2018임실N치즈 축제'가 34만여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대거 몰리면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의 명성을 재확인 했다.

9일 임실군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열린 이번 축제는 태풍이 지나간 곳엔 날씨에도 징검다리 연휴를 전후에 가족과 친지, 이웃 등과 함께 찾아온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역시 임실N치즈축제'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다.



임실군은 2018임실N치즈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의 명성을 재확인 했다.

특히 앞선 3일 KBS전국노래자랑-임실군편에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것을 비롯해 축제 전부터 천만송이가 넘는 국화꽃을 보기 위한 방문객들이 몰리면서 7만여 명이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 축제기간에는 태풍 콩레이와 무려 5개의 지역축제가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려 27만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해 무려 열흘간의 긴 연휴기간에 유일한 지역축제로 열린 것과는 달리 올해는 징검다리 연휴에 꽃은 날까지 겹쳐 흥행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으나, 이를 말끔히 불식시키는 기염을 토했다.

치즈(애)반하다 임실(애)플리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치즈라는 소재를 최대한 살려내며 9개 테마 7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첫날인 개막식에는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날씨상황이 좋지 않았으나, 개막식에 수천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개막식에는 지정환 신부와 심민 임실군수,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군민, 관광객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지정환 신부의 모습을 무대에서 댄스

와 함께 그리는 개막퍼포먼스를 선보이는 획기적인 장면을 선사,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일요일인 7일에는 화창한 가을날씨로 관광객들이 대거 몰리면서 축제장 곳곳에서 인산인해를 이뤘다. 제 3회 전국어린이치즈창작 동요대회와 웃놀이 대동한마당, 필봉농악공연 등과 제 8회 최갑석 가요제가 열리면서 축제의 낮과 밤을 뜨겁게 달궜다.

특히 8일에는 평일이어서 관광객이 다소 줄어든 것이라는 주최측의 예상과는 달리 온종일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에는 무려 500인분 키의 '국가대표왕치즈피자 만들기'의 이색체험이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35사단 군악대의 퍼레이드와 공연도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 날인 9일에는 한글날을 맞아 축제장을 방문하지 못한 인근 지역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오전 일찍부터 행사 주차장과 인근 도로가

차들로 가득 메워지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이날에는 관광객 참여행사로 치즈컵 케이크 모자이크와 치즈풍경화, 키즈 콘서트 등이 열렸다.

이밖에도 '치즈하고 스마일~' 포토 콘테스트, 웨딩포토존, 아이돌 놀이터 등 체험과 놀이공간이 행사장 곳곳에 마련돼 인기를 끌었다. 임실씨름협회 등이 주관하는 체육행사도 관광객들의 사랑을 크게 받기도 했다.

축제기간 내내 임실N치즈페어(치즈 시장)가 열려 임실치즈의 시장경쟁력을 한층 높였으며, 밤마다 열린 아모르파티에는 젊은 층 관광객들의 발길로 축제의 밤을 뜨겁게 달궜다.

축제 시작과 동시에 만개한 천만송이가 넘는 국화꽃과 청정임실에서 자란 50개월 미만의 암소한우, 각 읍면 생활개선회에서 만든 50여종의 향토 음식 등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임실=진홍영 기자



## 밤수확 '웃음꽃'

### 순창군 동계면 농가들 대풍 맞아

계속된 폭염과 병해충 피해 우려로 생산량 감소를 우려했던 순창군 동계면 농가들이 대풍을 맞아 밤 수확에 웃음꽃을 피웠다.

순창군 동계면에서 생산되는 밤은 지대가 높고 온도 편차가 커서 과육이 단단하고, 깨끗한 자연 환경 속에서 자란 만큼 향과 단 맛이 깊다고 익히 알려져 있다.

예로부터 토종밤, 촉과, 은기 등을 재배해 오다 최근 10년 전부터는 '옥광'이라는 당도 높은 신품종을 개발하는 등 품질향상에 주력한 결과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찾는 이가 많아졌다.

동계면은 작년에 311 농가가 750톤가량을 수확해 15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려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농가 소득을 주도적으

로 이끌고 있는 동계 농협과 동계 신협에서는 해마다 밤 수매를 통해 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작년 동계 농협에서는 중국에 250t의 밤을 수출했고 올해는 5월에 있을 '2018 순창 밤 수출 선진식'을 통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250톤을 중국에 수출 할 계획이다.

양상구 동계면장은 "올해 계속된 폭염과 병해충 피해로 밤 생산량 감소 우려가 컸으나 옥광이 대풍 맞이해 농가에 웃음꽃이 피어 기쁘다"며 "면에서도 밤 생산량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매아리

### 순창군 청년 창업지원

순창군이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선사한다.

군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최대 2천만원과 대출보증기관의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청년창업 시설비 지원사업과 용자금 이차보전지원사업으로 나누어서 지원한다. 청년창업 시설비 지원사업은 사업장 시설 증 개축비와 수선비, 기계 및 장비구축 비용 등을 1개 소당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로,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사실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단, 주류도매업, 주점업, 금융업, 부동산업, 종교단체 등 일부업종은 제외된다.

설주원 경제교통과장은 "경기 침체와 취업난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관내 청년들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창업 분야를 군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군은 청년창업지원 아이디어 공모사업도 진행해 지난 9월 28일까지 접수수 진행했다. 이 사업은 1개소 당 총사업비 중 50%범위 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한다. 오는 16일에 대상자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군립도서관

### 상주작가지원사업 공모

인문학 부흥지로 거듭나고 있는 순창군이 '도서관 상주작가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도서관 상주작가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해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순창군은 '상주작가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2년연속 선정돼 7개월간의 인건비와 문학 분야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상주작가는 순창군 홈페이지를 통해 10월중 공개채용할 계획이다. 군은 인문독서이카데미 및 인문독서캠프 개최 등 관내 지역주민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 남원 어린이 전문도서관 준공 앞뒀

### 내년 상반기 조기 개관

남원지역 학부모들과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오랜 숙원인 남원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 12월 준공을 위해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며, 사전운영을 거쳐 2019년도 상반기에 조기 개관할 계획이다.

도서관의 총 사업비는 57억원으로, 도동행정복지센터 옆 어린이공원 부지 860㎡에 지상 3층, 연면적 1,454㎡ 규모로 장난감대여실, 부모와 아

이 함께 하는 이야기방, 어린이자료실, 청소년자료실, 강의실, 동아리실 등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마련된다. 또한 도서관은 기후변화대응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친환경 도서관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패시브 건축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첨단 IT 장비 구축을 통한 참여·체험이 가능한 ICT기반의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 9월 개관한 청소년수련관과 함께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



연 문화예술과장은 "도서관은 개방형 복합문화공간이자 어린이·청소년들이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라며, "영유아를 고려한 활동적이며 안락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염봉섭 남원시의원, 도시숲 조성 확대 제안

### 남원시의회(의장 윤지홍)는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26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일반안건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다.

5분 발언에서 염봉섭 의원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 특히 올여름

극심했던 고온현상에 대해 우려하며, 도시 숲 조성 확대를 위한 제안을 말했다. 염 의원은 남원시에서는 울림 도심 곳곳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도로 열기를 식히기 위해 살수차로 물을 뿌리는 등 발 빠르게 대처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남원시도 도심내 유희 및 자투리땅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주민 스스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시민참여형 녹화 사업을 추진하여 도심 빈 땅 곳곳을 숲과 정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